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0, Vol. 24, No. 2, 51~72

부러움: 연합과 접근의 동기를 알리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차운아†
중앙대학교

이 연구는 회귀분석과 가상 정서 상황에서의 정서 표현 대상에 대한 인상 평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 선망 관련 정서인 "부러움"과 "시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러움이 시샘에 비해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다가가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을 가지는지, 특히 정서 표현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동기를 신호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비교 지향 성향이 높을수록 부러움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부러움을 표현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샘을 표현한 대상에 비해 우월함을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고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샘이 상향 사회 비교 상황 중에서도 심리적 거리가 멀거나 가깝게 지낼 필요가 없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분리' 혹은 '회피'의 정서인 데 비해, 부러움은 가까운 혹은 가깝게 지낼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연합' 혹은 '접근'의 정서임을 보여준다.

주요어 : 정서, 선망, 부러움, 시샘, 감탄, 사회비교, 접근 동기

차운아(2009)는 자신이 얻지 못한 바람직한 결과를 갖게 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선망(envy)의 정서 중 한국인의 삶과 언어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부러움'이라는 정서에 관해 분석한 바 있다. 그 논문에서 저자는 부러움을 적개심 혹은 악의를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의 선망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무해한 선망(benign envy)'의 독특한 사례로 보았다. 또한 부러움은 관계와 조화가 중시되는 한국의 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정서로서, 나와 가깝거나 내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상향 비교대상 타인에 대해 느끼는 '연합'의 정서 혹은 가깝게 지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거리를 좁히고 다가가려고 하는 '접근'의 정서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차운아, 2009). 실제로 동일 연구에서 부러움은 시샘과 질투와 같은 다른 선망 범주의 정서들과 마찬가지로 부적 정서의 경험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시샘이나 질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정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주관적 안녕감, 후회/극대화 경향, 공정성에 대한 신념 등과 같은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차운아,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E-mail: ocha@cau.ac.kr

www.kci.go.kr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가져 한국인의 정서적 삶을 예측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무엇보다 가상적인 정서 경험 상황에서 정서를 유발한 타인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았을 때 시샘과 달리 부러움은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까운, 혹은 더 가까워지고 싶은 타인에게 느끼는 정서임을 보여주었다(차운아, 2009).

한국 대학생 자료에서 드러난 이러한 부러움의 존재와 특성은 최근 알려진 사회비교에서의 문화차 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문화연구들은 동양 문화권이 서양 문화권에 비해 사회비교 정보에 민감하며 상향 사회비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예: White & Lehman, 2005).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비교 연구들 역시 사회비교 대상 선택비율은 상향 사회비교가 40% 이상으로 하향 비교보다 월등히 높으며 수평 비교보다는 더 높거나 같은 수준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한국이 높은 상향 사회비교 추구 경향에 있어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예: 장은영, 한덕웅, 1999; 한덕웅, 1999).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White와 Lehman(2005)은 서양 문화권에 비해 동양 문화권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 및 집단의 목표가 중시되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사회 비교 정보에 민감하며, 특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와 규범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좀 더 향상시켜야 한다는 자기 향상(self-improvement)의 동기가 강하여 상향 사회비교를 추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비교 정보에 민감하고 특히 높은 상향 사회비교 추구 성향을 보이는 한국 문화에서 선망과 같은 사회비교 관련 정서들의 경험은 한국인의 삶에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 경험들이 동양 문화에서 어떠한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가지며 한국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비교와 수반된 정서적 반응과 관련하여 이전의 정서 연구들은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 및 적대감(Diener & Fujita, 1997; Marsh & Parker, 1984; Smith & Insko, 1987; Tesser, 1988; Thorton & Moore, 1993)에 관심을 두었으며, 선망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 대한 악의를 포함하는 '악의적 선망(malicious envy)'에 초점을 맞추었다(Parrott, 1991; Parrott & Smith, 1993; Smith & Kim, 2007). 이를 반영하듯 최근 조직 연구에서는 보다 나은 타인에 대한 적의를 내포한 선망 정서가 조직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해악(Cohen-Charash & Mueller, 2007; Schaubroeck & Lam, 2004; Veccio, 2000, 2005)과 이에 대한 관리 방법(예: Dogan & Veccio, 2001)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상향 사회비교가 사회적으로 나보다 우월한 타인과 그 타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긍정적 자기상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연구결들(예: Suls, Martin & Wheeler 2002)을 포함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정 정서 경험의 직접적인 결과와 영향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정서가 사회에서 가지는 포괄적인 의미나 기능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러움이 다른 유사 정서들과는 어떤 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그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정서의 사회적 기능

정서에 대한 기능적 분석에 대한 최근 논의로는 정서의 사회적 기능적 접근(social functional approach)이 있다(Frijda & Mesquita, 1994; Keltner & Haidt, 1999, 2001; Keltner & Kring, 1998). 특히 Keltner와 Haidt(1999, 2001)는 (1)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2) 정서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화적 과정의 산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를 조직화하고 조정하는 수단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들은 정서란 불공정, 애착 정립, 지위 위계의 협상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3) 문화는 생존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된 정서 사이에 개입하여 그 연결을 느슨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문화는 특정 정서를 진화시킨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거나 기존 정서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정서를 개인 내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양자관계, 집단, 그리고 문화의 네 가지 수준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

www.kci.go.kr

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적 접근에 비추어 볼 때 선망 관련 정서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선망 연구의 중심이었던 악의적 선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바라지만 가질 수 없었던 자원이나 성과를 가진 대상에 대한 적의와 분개의 정서를 포함하는 악의적 선망의 경험이 제로섬 경쟁 상황과 불공정함(unfairness)의 지각과 관련이 있는 만큼(Cohen-Charash & Mueller, 2007; Schaubroeck & Lam, 2004; Veccio, 2000, 2005), Veccio(2000)와 같은 학자들은 선망 경험이 가치있는 자원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동기화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기능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Fiske(1991)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망이 개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누리는 타인을 폄하하도록 동기화함으로써 동등한 관계를 보존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Keltner와 Haidt(2001)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선망은 집단 관리(group governance)의 문제 중 부정행위나 변절을 피하고 협력을 권장하여 상호성(reciprocity)을 회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정서의 하나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을 뿐 그 사회적 기능을 확인하려는 실제적 노력은 미흡한 편이었으며, 특히 상향 사회비교 타인에 대한 적의를 포함하지 않는 무해한 선망을 배제하고 있어 시샘과 더불어 부러움 정서의 기능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다 포괄적인 선망 정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Van de Ven, Zeelendberg, 및 Pieters(2009)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선망의 정서가 상향 사회비교에서 확인된 불균등 상태를 평준화(leveling)하려는 동기와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무해한 선망은 개인이 자신의 위상을 개선함으로써(moving-up) 상향 평준(leveling up)을 추구하는 동기를, 악의적 선망은 상향 비교 타인의 위상을 끌어내림으로써(pulling-down) 하향 평준(leveling down)을 추구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차운아(2009)는 선망의 정서 경험 대상과의 사회적/심리적 거리에 주목하여 선망의 사회적 기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즉, 시샘 혹은 악의적 선망은 나와 가깝지 않거나 가까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향 비교대상에 대해 느끼는 *분리*의 정서이거나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는 *회피*의 정서인 데 비해, 부러움 혹은 무해한 선망은 내게 가깝거나 가깝게 지내고 싶은 상향 비교대상에 대해 느끼는 *연합*의 정서 혹은 가깝게 지내야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거리를 좁히고 다가가려고 하는 *접근*의 정서로 개념화하였다[1]. 더 나아가 차운아(2009)는 구성원 간의 조화가 중시되는 동양 문화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 상향 사회비교 추구 경향이 강화되지만 이로 인해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정적 효과(예: 열등감, 적개심, 질시, 시기 등)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져, 이 문화의 중요 가치인 구성원 간의 조화가 오히려 위협받게 되는 문화적 역설 상황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무해한 선망인 부러움은 이러한 문화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상향 사회비교 타인을 추구하고 다가가 동일시할 수 있도록 동기화함으로써 사회적 친밀감을 도모하고 사회적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한국 문화에 독특하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Van de Ven 등(2009)과 차운아(2009)의 악의적 선망과 무해한 선망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논의는 그 본질적 내용에서는 유사하나 전자가 부당한 불평등 상태로부터 균형을 회복하려는 평준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후자는 정서 경험 대상과의 사회적/심리적 거리 및 접근/회피 동기의 측면에서 부러움과 시샘의 사회적 기능을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차운아, 2009)의 접근 방식을 따라 악의적 선망은 '분리 혹은 회피'의 동기에 기반을 둔 정서로, 무해한 선망은 '연합 혹은 접근'의 동기에 기반을 둔 정서로 이론화하였다. 특히 그 사회적 기능을 각 정서 경험 빈도와 사회정보 추구의 민감성 및 상향 사회비교 동기와의 관련성, 그리고 실제 사회적 관

1) 이는 한국 문화에서 부러움과 시샘이 정의되는 방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2010)에 따르면 '부러움'은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인데 비해 '시샘(시새움의 준말)'은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함. 또는 그런 마음'으로 정의되어 있다. 단, 위 대사전에는 형용사 '부럽다'만 수록하고 그 명사형인 '부러움'은 별도로 정의되어있지 않아 '부럽다'의 기술을 바탕으로 부러움을 정의하였다.

www.kci.go.kr

계에서 이들 정서의 표현이 정서 경험자와 정서 경험의 대상자 사이의 사회적/심리적 거리를 이론화한 방향으로 조절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부러움은 내가 열망하나 갖지 못한 것(예: 물건, 사회적 지위, 속성, 혹은 삶의 질 등)을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이 향유하고 있음을 인식함에서 비롯되는 정서 반응으로서 '느끼는' 정서일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상향 사회비교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정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박인조와 민경환(2005)은 언어에 의한 정서 표현은 타인에게 정서체험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게 "부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접근의 동기와 친밀감을 표시함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러움과 시샘의 특성은 이들 정서의 사회적 기능을 Keltner와 Haidt(1999)가 제안한 네 가지 분석 수준 중 개인 수준과 양자 관계 수준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에 따르면 양자 관계 수준에서 정서의 사회적 기능은 (1) 타인의 정서, 신념, 의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외에도 (2) 정서를 전달한 사람에게 상보적 내지 상호적인 반응을 유발하며 (3) 그 자체로 타인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제지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자 관계 수준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선망 정서에 적용한다면 부러움과 시샘을 표현하는 행위는 특히 각 정서와 연합돼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거리의 크기를 신호할 뿐 아니라 앞서 가정한 접근/회피 동기 및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이외에도 이를 통해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의도한 심리적 거리에 대한 상보적인 혹은 상호적인 반응을 유도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시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분리'나 가까이하고 싶지 않다는 '회피'의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도 의도한 거리를 확인시키고 비호감을 유도하는 데 반해 부러움의 표현은 사회적/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합'이나 가까이 하고 싶다는 '접근'의 사회적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상호적인 친밀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호감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사람(정서표현자)과 그 대상이 되는 사람(정서대상자)의 양자 관계를 설정한 후 정서 표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서대상자의 양자 관계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 양상을 이용해 각 정서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표

본 연구는 무해한 선망의 사례로 한국의 부러움을 악의적 선망인 시샘과 비교 분석한 차운아(2009)의 연구를 보완, 발전시키고 이들 두 정서의 사회적 기능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는 기질적 선망 성향 및 사회비교 정보의 추구 성향의 개인차가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상관연구와 가상적 정서 상황에서 특정 정서의 표현이 양자 관계의 지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는 실험연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기 위해 몇 가지 개인적 특성들이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차운아, 2009)가 삶의 만족도, 후회/극대화 경향, 공정성에 대한 신념 등 사회 비교의 해석 및 사회비교의 결과로서 초래될 수 있는 심리적 경향과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빈도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정보를 탐색하는 성향 및 상향 사회비교를 추구하는 성향이 특별히 이들 정서와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한국인의 사회비교 관련 동기와 부러움 정서 간의 연관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비교 성향 및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로서 아이오와-네덜란드 비교 지향 측정치(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INCOM): Gibbons & Buunk, 1999)와 조절 초점 척도(Lockwood, Jordan & Kunda, 2002)를 활용하였다. 사회비교 지향의 경우 능력과 의견과 관련된 자기 평가 동기에서 사회비교 정보를 추구하는 성향을 측정하며

www.kci.go.kr

과제 수행 후 사회비교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 등과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Gibbons & Buunk, 1999). 조절 초점(Higgins, 1997)의 경우 접근-회피의 동기 구분에 기초하여 자기 조절의 목표에 따라 동기화의 방향을 포부와 성취에 대한 촉진(promotion) 초점과 책임과 안전에 대한 예방(prevention)초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Lockwood 등(2002)은 개인차로 측정된 촉진 및 예방 초점 정도에 따라 동기화를 위해 선택하는 역할 모델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성공 혹은 실패에 의해서 동기화가 된 경우를 회상하게 했을 때 강한 예방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실패의 회피 전략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모델을 회상하는 반면, 강한 촉진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성공의 성취 전략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모델을 회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ckwood, Jordan, & Kunda, 2002, 연구 3). 따라서 이 두 측정치는 사회비교 정보를 탐색하는 성향 및 상향 비교 대상에 대한 접근 동기가 부러움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러움과 시샘은 여전히 선망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들을 공유할 것이지만, 사회비교 정보를 탐색하고 상향 사회비교 타인에 의해 동기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구분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부러움의 경우 한국 문화가 요구하는 사회비교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화라는 문화적 과제 해결 기능과 연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비교 추구 성향 및 상향비교 선택 성향과 관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질적 선망과 더불어 사회비교 지향, 조절 초점 등의 심리적 특성들을 측정한 후 이들 특성이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빈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둘째, 부러움과 시샘의 사회적 기능을 정서 표현으로 상대에게 전달되는 사회적 의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차운아, 2009)가 참가자들이 부러움 혹은 시샘의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을 가정한 후 정서 경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서 반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서 대상에 대한 지각을 유추하게 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타인이 참가자들에게 특정 정서를 표출했을 때 그 타인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갖게 되는지 보고하게 하였다. 즉, 이전 연구가 특정 정서 경험을 발생시킨 상황의 해석 및 그 원천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양자 관계에서 상대방이 특정 정서와 관련된 사회적 단서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보적 혹은 상호적 반응으로서 상대방의 양자 관계의 인식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함으로써 부러움과 시샘의 사회적 기능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샘 정서 표출이 사회적인 '분리' 혹은 '회피'를 드러내는 데 비해 부러움의 표출은 '연합' 혹은 '접근'의 의미를 지니므로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시샘의 대상이 된 사람에 비해 상호적인 반응으로서 정서표현자를 좀 더 자신과 가까운 대상 혹은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단순히 개인의 내적 경험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정서라는 차원에서 양자 관계에서 정서가 표현되고 상대에 의해 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관계의 조율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러움의 정서는 시샘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정서를 직접 표현하여 전달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러한 측면은 부러움이 단순히 특정 상황의 해석에 대한 반응일 뿐 아니라 정서 경험을 유발한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서 대상자가 정서 경험자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와 연합된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정서 경험자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해당정서를 직접 표현하여 전달하는 상황과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간접적인 통로로 알게 되는 상황을 비교하여 타인에게 직접 정서를 표현하는 것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서 경험자의 정서 표현 및 전달 방식에 따라 정서 대상자에게 다가와 해당정서를 직접 '말하는' 경우와 제 삼자에게 해당정서를 언급하는 것을 '엿듣는' 경우의 두 가지 상황에서 정서 대상자의 반응을 비교하였다. 부러움이 특히 '연합' 및 '접근'의 의미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 정서 경험을 직접 상대에게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고자 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면 정서를 직접 전달한 경우에 정서를 간접 전달한('엿듣는') 경우에 비해 직접 전달한('말하는') 경우에 대상

www.kci.go.kr

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선행연구가 부러움과 시샘의 두 정서만을 사용하여 차이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상향 사회비교와 관련된 긍정적 정서로서 감탄(admiration)을 추가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선망의 연구에서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 대한 악의 및 적대감을 포함하지 않는 부러움과 같은 '무해한 선망(benign envy)'은 감탄(admiration)에 가까운 것으로(Foster, 1972; Silver & Sabini, 1978) 선망의 연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까지 여겨졌다(Smith & Kim, 2007). 차운아(2009)의 연구에서는 부러움이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거나 가깝게 느끼고 싶어하는 대상에게 보이는 정서라는 점에서 시샘과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러움이 감탄과 같은 다른 긍정 정서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서인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러움과 시샘의 비교가 결국은 감탄이라는 긍정 정서와 악의를 포함하는 전통적 의미의 선망을 비교한 결과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러움이 선망의 범주에 속하는 정서임을 확인하는 한편, 감탄을 추가하여 부러움이나 시샘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부러움이 갖는 정확한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Darwin(1872/1998)은 감탄(admiration)을 '즐거움과 승인의 느낌이 연합된 놀라움'으로 표현했으며 Ortony와 동료들(1988)은 감탄을 경외, 존경과 더불어 인정 정서(appreciation emotions)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하였다. 보다 최근에 Algoe와 Haidt(2009)는 고양(elevation)이 특히 다른 사람의 도덕적 탁월함(moral excellence)에 대한 반응이라면, 감탄은 도덕적 영역에 국한될 필요 없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탁월함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함으로써 감탄이 폭넓은 의미에서 상향 사회비교 대상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긍정 정서로서 부러움의 좋은 비교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상향 비교 상황과 관련해 감탄과의 비교를 통해 부러움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는지 총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부러움의 사회적 기능의 핵심이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도모라면, 부러움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신호 및 이를 통해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반응은 시샘과 달리 매우 우호적일 것이며, 이는 감탄의 표현만큼이나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러움은 선망 관련 개념으로 부적 정서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높은 만큼 정서표현자에 대한 우월성 평가는 감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보여 감탄과 부러움이 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학생 85명(남자 52명, 여자 21명, 미보고 12명)이 수업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령 범위는 20-27세, 평균 연령은 23.00세(SD=1.52)였다.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반부의 상관연구와 후반부의 실험연구로 설계되었다. 전반부에서 각 참가자는 일련의 척도에 응답하였고(측정도구 참조), 이어 후반부에서는 일정한 가상 상황에 본인이 있다는 상정 하에 일련의 질문에 답하였다. 후반부는 모든 참가자가 6개의 다른 가상 상황에 대해 자신의 반응을 표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무선화 블록 설계(randomized block design)로 된 실험이다. 6개의 조건은 3개의 정서 조건(부러움, 시샘, 감탄)과 2개의 정서 전달 방식 조건(직접, 간접)의 조합(3x2)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연구의 경우 먼저 참가자에게 "당신은 이번 학기 수업에서 좋은 과제 점수를 받았습니다"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 때 마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참가자의 동성친구 A가 특정 정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설정한 뒤 이 상황에서 A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이 때 동성친구 A가 보인 정서 반응은 정서 조건에 따라 참가자에 대해 "정말 ***부럽다***"(부러움), "정말 ***샘난다***"(시샘) 혹은 "정말 ***대단하다***"(감탄)고 표현하는 3가지 상황을 만들었다. 정서 조건은 참가자 내 변인으로서 모든 참가자가 세 가지 정서 상황에 대해 모두

www.kci.go.kr

표 1. 동성친구 A에 대한 인상 측정

질문	측정 특성
우월성	
(1) A는 능력적인 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능력
(2) A는 사교적 관계나 기술 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사교성
(3) A는 도덕적인 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도덕성
심리적 거리	
(1) A는 나와 얼마나 친한 사람입니까?	친밀감
(2) A는 내가 얼마나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입니까?	친애욕구
(3) A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호감
인간성	
(1) A는 얼마나 신뢰할만한 사람입니까?	신뢰
(2) A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선함

평가하였으며 그 제시순서는 상대균형화하여 피험자 간에 무선할당하였다.

이들 3개 정서 조건 내에서 다시 2개의 정서 전달 방식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는 동성친구 A가 직접 나에게 정서를 전달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A가 제삼자인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상황이다. 직접 전달 조건에서는 동성친구 A가 "***당신에게 다가와*** "정말 해당정서"고 ***말합니다***"(말하다)라고 기술해 주고, 간접 전달 조건에서는 A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정말 해당정서"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엿듣다)라고 기술해 주었다. 정서 전달 방식 조건 역시 참가자 내 변인으로서 모든 참가자가 직접-간접 혹은 간접-직접의 2가지 제시순서 중 하나를 무선할당 받아 각 정서에서 두 가지 전달 상황에 대해 모두 평가하였다. 단, 전달 방식의 제시순서는 피험자 내에서 고정되었다.

위와 같은 각 조건(가상상황)에서 동성친구 A에 대한 인상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는 총 8개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들 측정 문항은 크게 (1) 우월성, (2) 심리적 거리 그리고 (3) 인간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졌으며, 이들 문항은 표 1에 나와 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

사회비교의 결과로서 경험되는 정서 중 부러움과 시샘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측정도구가 설문에 포함되었다.

정서 경험 보고(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ITAS))

이 연구에서는 Diener, Fujita 그리고 Seidlitz(1991)가 개발한 강도 및 시간 정서 설문(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ITAS)에 포함된 정서목록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정서 경험 빈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ITAS의 24개 개별 정서 목록에 부러움, 시샘을 추가한 총 26개의 정서 목록을 사용하였다. 개별 정서 경험의 빈도는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아래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7점 척도(1=*전혀 느낀 적 없다*, 3=*기간 중 절반은 느꼈다*, 7=*항상 느꼈다*)를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www.kci.go.kr

하였다.

기질적 선망 척도(Dispositional Envy Scale: DES)

선망과 관련된 기질적 개인차가 실제 생활에서의 특정 정서 경험의 빈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Smith, Parrott, Diener, Hoyle, 그리고 Kim(1999)이 개발한 기질적 선망 척도(DES)를 사용하였다. DES는 질투(jealousy)와 구분되는 선망(envy)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이 점수는 참가자들의 선망 경험 보고(예: 2주 기간의 무선 시점에 보고한 선망의 강도 혹은 4주 간 일일보고된 선망의 강도)를 유의하게 예측할 뿐 아니라 우월한 비교대상에 대해 느끼는 선망 반응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et al., 1999). Smith 등(1999)의 연구에서 선망(envy)은 열등감(inferiority)과 악의(ill will)라는 두 가지 정서를 포함하는 '악의적 선망(malevolent envy)'에 기반을 둔 것으로 '나는 매일 시기심을 느낀다,'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지만,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낀다,' '다른 누군가가 너무나 쉽게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상당한 좌절감을 안겨준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5=*강하게 동의한다*) 상에 답하게 되어 있다. 원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83~.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9였다. 8문항의 평균으로 개인의 DES 점수를 산출하였다.

사회비교 지향 척도(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INCOM)

부러움과 시샘을 경험하는 것이 사회비교 지향 성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한 아이오와-네덜란드 비교 지향 척도(INCO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비교에 대한 동기는 문화 보편적이라는 가정 하에 사회비교 지향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회비교 지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교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정보에 대해 강한 정서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다. INCOM은 능력(ability)과 의견(opinion)의 두 요인 구조를 가지는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 상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능력 하위문항은 총 6문항으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늘 관심이 많다,' '내가 얼마나 잘 했는지를 알고 싶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와 비교한다'과 같이 "내가 잘 하고 있는가(how am I doing)?"를 평가하기 위해 사회비교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을 측정하였다. 의견 하위문항은 총 5문항으로 '나는 종종 나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자 노력한다,' '어떤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고 한다' 등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가(What should I think or feel)?"의 질문과 관련하여 사회비교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COM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의견 사회비교 지향 1문항이 능력 사회비교 지향 문항과 한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능력 하위문항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개인별로 능력 사회비교 지향 7문항(사회비교지향-능력)과 의견 사회비교 지향 4문항(사회비교지향-의견) 각각의 평균으로 두 개의 사회비교 지향 하위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총 11문항에 대한 원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83,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6이었으며, 능력(7문항) 및 의견(4문항) 하위 문항에 대한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각각 .80, .78이었다[2].

조절 초점(Promotion/Prevention Scale)

부러움과 시샘이 상향 사회비교 정보를 추구하는 성향과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 초점(regulatory focus)을 확인하는 척도로서 Lockwood,

2) Gibbons와 Buunk(1999)의 연구에서 의견 관련 사회비교 지향 문항으로 포함되었으나 본 표본에서 능력 관련 사회비교 지향 문항과 한 요인이 묶인 문항('나는 내 삶의 상황을 결코 다른 사람의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는다(역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4였으며 이 때 능력과 의견 관련 하위문항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78, .78이었다. 해당 문항을 제외시킨 분석 결과가 해당 문항을 능력 관련 하위문항으로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와 다르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www.kci.go.kr

Jordan, 그리고 Kunda(2002)가 사용한 촉진/예방 척도(promotion/preven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Higgins와 동료들은 사람은 바람직한 성과를 추구하고자 하는 촉진(promotion) 목표와 바람직하지 않은 성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예방(prevention) 목표라는 두 가지 조절 목표(regulatory goals)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개관은 Higgins, 1997, 1998 참고) 어느 목표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조절 초점(regulatory focus)이 달라진다. Lockwood 등(2002)이 사용한 촉진/예방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9개의 촉진 문항과 9개의 예방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촉진 문항에는 '나는 내가 희망하는 바와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주 떠올려 보곤 한다,' '나는 보통 내가 미래에 성취하고자 바라는 성공에 초점을 맞춘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방 문항에는 '나는 대체적으로 내 삶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는 종종 나의 학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곤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참가자는 9점 척도(1=*전혀 진정한 내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9=*진정한 내 모습에 매우 가깝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원 연구에서의 촉진 초점과 예방 초점 문항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각각 .81,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0,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로 촉진 초점과 예방 초점을 측정하는 9문항을 평균하여 촉진 초점 점수와 예방 초점 점수를 산출하였다.

절차

참가자들은 먼저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전반부의 척도와 후반부의 가상 정서 상황을 이용한 실험 연구 질문지를 받아 개별적으로 작성하였다. 조사의 전반부에서 참가자는 (1) 정서 경험 보고, (2) 조절초점, (3) 사회비교 지향, 그리고 (4) 기질적 선망 척도의 순으로 차례로 반응하였다. 이것이 끝나면 조사의 후반부로 들어가 가상적 정서 상황을 이용한 실험에 참가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질문지는 3가지 정서 조건으로 만들어진 총 6가지 제시순서와 2가지 정서 전달 방식의 제시순서의 조합에 의해 총 12가지 종류로 만들어졌으며, 참가자는 이 중 한 가지 질문지를 무선할당받아 답을 기입하였다. 이 질문지에서는 할당된 조건에 부합하는 순서로 정서 표출 타인에 대한 지각 관련 질문들(표 1 참조)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한 후 세션이 종료되었다.

결 과

기질적 선망, 사회비교 지향 및 조절 초점

부러움과 시샘의 경험이 선망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들을 공유하지만, 사회비교 정보를 적극 탐색하고 상향 사회 비교 대상에 다가가려는 동기적 측면에 있어서는 구분 가능한 차이를 드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질적 선망, 사회 비교 지향, 조절 초점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빈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망의 기질적 개인차를 측정하는 기질적 선망(dispositional envy)의 경우, 선망 정서 가족의 범주에 속하는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빈도를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만 사회비교 정보의 적극적 탐색 및 상향 비교 대상에 대한 접근의 동기의 경우 부러움의 정서 경험에는 영향을 미치나 시샘의 정서 경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개인의 기질적 선망 점수는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빈도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러움: β =.42, $t(76)$=3.60, p=.001; 시샘: β =.48, $t(76)$=3.99, p<.001). 기질적 선망의 경우, 상향 비교 대상에 대한 열등감 및 악의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선망을 기초로 개발된 만큼 시샘의 정서 빈도를 예측하는 정도가 다소 높았으나 같은 선망 범주에 들어가는 부러움의 정서 경험 역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러움과 시샘이 선망 범주의 정서라는 공통점을 지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비교 지향 성향과 조절초점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된 결과에서는 사회비교 정보의 탐색 및 사회비교의 동기적 측면에서 이 두 정서가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다. 사회비교 지향 성향의 경우 사회비교 정보를 탐색하려는 경향이 정의 방향으로 부러움의 빈도를 유

www.kci.go.kr

표 2. 부러움과 시샘의 경험 빈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82)

	부러움			시 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상수)	1.408		1.471	1.014		.945
기질적 선망	.499	.424	3.599**	.622	.477	3.987***
사회비교지향-능력	.182	.094	.736	.202	.095	.723
사회비교지향-의견	.489	.262	2.191*	-.123	-.062	-.509
촉진초점	.014	.013	.111	.117	.097	.835
예방초점	-.322	-.271	-2.254*	-.182	-.137	-1.135

*p<.05; **p<.01; ***p<.001.

의미하게 예측하였으나 시샘의 빈도는 예측하지 못하였다[3]. 하위문항 별로는 이러한 관계는 특히 의견 관련 사회비교 정보 탐색 성향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러움: β =.26, t(76)=2.19, p<.05; 시샘: β =-.06 t(76)=-.51, p=n.s.). 이에 비해 능력 관련 사회비교 정보 탐색 성향은 부러움이나 시샘의 정서 경험 빈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사회비교 지향의 능력 요인은 사회비교를 통해 나의 능력과 수행의 정도를 위치 지우고자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데 비해 의견 요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Gibbons와 Buunk(1999)는 능력 하위문항과 의견 하위문항 점수가 다른 측정치들과 갖는 상관 패턴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낮은 자존감, 우울증, 신경증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측정치들과는 능력 요인이 의견 요인에 비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고하는데, 이는 능력 요인이 자기 입증의 동기에서 사회비교 정보를 지향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러움의 경험 빈도가 능력 관련 사회비교 지향과는 무관하나 의견 관련 사회비교 지향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은 부러움의 경험이 내가 남들보다 혹은 남들만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비교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이나 경험을 알기 위해 사회비교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인 성향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조절 초점의 경우 성공적 모델을 추구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촉진 초점이 강할수록 부러움의 정서 경험 빈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예방 초점이 강한 사람일수록 부러움의 정서 경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샘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부러움: β =-.27, t(76)=-2.25, p<.05; 시샘: β =-.14 t(76)=-1.14, p=n.s). 따라서 시샘과 달리 부러움의 정서 경험은 특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비교 정보의 탐색 성향과 관련이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나 실패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덜 경험하는 정서임을 보여준다.

정서표현자에 대한 지각

선행연구(차운아, 2009)에서는 참가자가 부러움이나 시샘을 경험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정서 경험자의 입장에서 특정 정서를 유발한 타인에 대한 지각이 다른지를 통해 부러움과 시샘을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타인이 나에게 부러움 혹은 시샘을 표현했을 때, 즉 참가자가 타인의 정서 경험 및 표현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정서표현자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3) 하위문항의 구분 없이 총 11문항의 평균을 이용한 사회비교 지향 점수를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사회비교 지향 점수는 정의 방향으로 부러움의 빈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나 시샘의 빈도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러움: β =.29, t(76)=2.49, p<.05; 시샘: β =.03, t(76)<1 p=n.s.).

www.kci.go.kr

형성하는지를 봄으로써 이들 정서의 표현이 드러내는 대인 관계의 단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월성, 심리적 거리, 그리고 인간성을 추측코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러움을 표현한 타인은 시샘을 표현한 타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보다 우월한 속성을 지닌, 나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며,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부러움을 표현한 타인에 대한 인식은 감탄의 정서를 표현한 타인에 대한 인식에 비교해 거의 유사하거나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월성

정서표현자에 대한 우월성 지각 여부는 나에게 특정 정서를 표현한 동성친구 A가 능력적인 측면에서(능력),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사교성), 혹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덕성) 얼마나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든 참가자가 감탄, 부러움과 시샘의 세 가지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지각을 보고했으므로 감탄, 부러움, 시샘의 정서 조건과 직접과 간접의 전달 방식에 따른 우월성 지각 차이를 3 x 2 피험자내 반복측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월성 지각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능력, 사교성, 도덕성의 지표 모두에서 정서 조건에 따른 주효과, 전달 방식에 따른 주효과, 그리고 정서조건과 전달 방식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그림 1). 먼저, 정서 조건 주효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탄을 표현한 타인을 가장 우월하게 평가하고 부러움, 시샘을 표현한 상대의 순으로 우월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은 능력, 사교성, 그리고 도덕성 지각 모두에서 나타났다[능력(감탄: M=4.58, SE=.10; 부러움: M=4.25, SE=.10; 시샘: M=3.87, SE=.13; 정서의 주효과: $F(2,81)=12.80$, $p<.001$, $\eta_p^2=.24$; 감탄 vs. 부러움: $F(1,82)=8.43$, $p=.005$, $\eta_p^2=.09$; 부러움 vs. 시샘: $F(1,82)=5.49$, $p<.05$, $\eta_p^2=.06$), 사교성(감탄: M=4.82, SE=.12; 부러움: M=4.47, SE=.11; 시샘: M=3.77, SE=.13; 정서의 주효과: $F(2,78)=19.35$, $p<.001$, $\eta_p^2=.33$; 감탄 vs. 부러움: $F(1,79)=6.96$, $p<.05$, $\eta_p^2=.08$; 부러움 vs. 시샘: $F(1,79)=16.19$, $p<.001$, $\eta_p^2=.17$), 도덕성(감탄: M=4.78, SE=.10; 부러움: M=4.48, SE=.10; 시샘: M=3.84, SE=.12; 정서의 주효과: $F(2,81)=18.45$, $p<.001$, $\eta_p^2=.31$; 감탄 vs. 부러움: $F(1,82)=8.70$, $p<.005$, $\eta_p^2=.10$; 부러움 vs. 시샘: $F(1,82)=15.69$, $p<.001$, $\eta_p^2=.16$)].

정서의 전달 방식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우월성 지각의 경우, A가 제 삼자에게 표현한 내용을 엿들어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정서를 알게 된 경우에 비해 나에게 다가와 정서를 직접 표현한 경우에 동성친구 A를 좀 더 우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패턴도 능력, 사교성, 도덕성 지각 모두에서 발견되었다[능력(말하다: M=4.37, SE=.09; 엿듣다: M=4.10, SE=.09; $F(1,82)=8.98$, $p<.005$, $\eta_p^2=.10$), 사교성(말하다: M=4.56, SE=.10; 엿듣다: M=4.15, SE=.09; $F(1,79)=16.67$, $p<.001$, $\eta_p^2=.17$), 도덕성(말하다: M=4.51, SE=.09; 엿듣다: M=4.22, SE=.08; $F(1,82)=9.97$, $p<.001$, $\eta_p^2=.11$)].

그러나 무엇보다 능력, 사교성, 도덕성의 우월성 평가 모두에서 정서조건과 전달 방식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능력: $F(2,81)=10.82$, $p<.001$, $\eta_p^2=.21$; 사교성: $F(2,78)=7.32$, $p<.005$, $\eta_p^2=.16$; 도덕성: $F(2,81)=6.64$, $p<.005$, $\eta_p^2=.14$). 그 패턴을 살펴보면 감탄, 부러움, 시샘의 순으로 우월성 평가가 낮아지는 현상은 상대방이 각 정서를 직접 다가와 표현한 경우보다는(능력: $F(1.86,140.96)<1$, p=n.s.; 사교성: $F(1.86,140.96)<1$, p=n.s.; 도덕성: $F(1.72,131.01)=4.90$, $p<.05$, $\eta_p^2=.06$) 특히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엿듣는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능력: $F(1.73,142.21)=20.12$, $p<.001$, $\eta_p^2=.20$; 사교성: $F(1.68,124.56)=22.02$, $p<.001$, $\eta_p^2=.23$; 도덕성: $F(1.52,115.45)=24.75$; $p<.001$, $\eta_p^2=.25$), 이러한 추세는 능력, 사교성, 그리고 도덕성 모두에서 나타났다[능력(감탄 vs. 부러움 $F(1,82)=15.36$, $p<.001$, $\eta_p^2=.16$; 부러움 vs. 시샘: $F(1,82)=7.31$, $p<.01$, $\eta_p^2=.08$), 사교성(감탄 vs. 부러움: $F(1,80)=12.99$; $p=.001$, $\eta_p^2=.14$; 부러움 vs. 시샘: $F(1,80)=12.90$; $p=.001$, $\eta_p^2=.14$), 도덕성(감탄 vs. 부러움: $F(1,82)=9.23$, $p<.01$, $\eta_p^2=.10$; 부러움 vs. 시샘: $F(1,82)=20.30$, $p<.001$, $\eta_p^2=.20$)].

또한 감탄의 경우에는 정서 전달의 방식에 상관없이 부러움과 시샘에 비해 상대방의 우월성을 높게 지각하였으나, 부러움과 시샘에서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 받았을 때 특히 상대방의 우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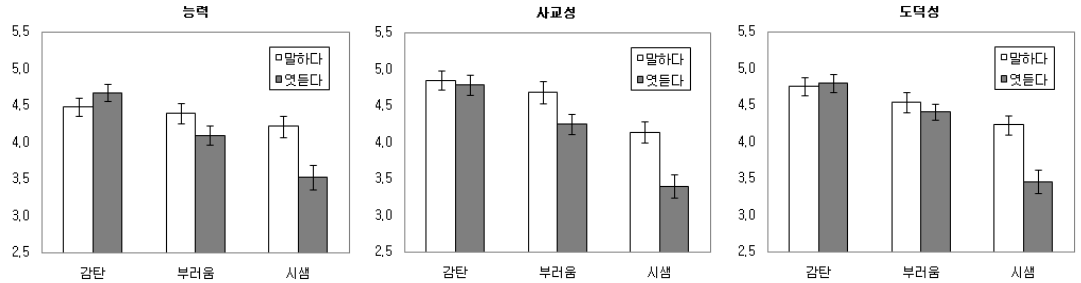

그림 1. 정서 종류와 정서 전달 방식에 따른 정서표현자에 대한 우월성 지각

나타났으며, 시샘의 경우 그 격차가 특히 심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능력, 사교성, 도덕성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능력(부러움: $F(1,84)=3.88$, $p=.05$, $\eta_p^2=.04$; 시샘: $F(1,82)=18.46$, $p<.001$, $\eta_p^2=.18$), 사교성(부러움: $F(1,83)=6.67$ $p<.05$, $\eta_p^2=.07$; 시샘: $F(1,80)=17.72$, $p<.001$, $\eta_p^2=.18$), 도덕성(부러움: $F(1,84)<1$, p=n.s.; 시샘: $F(1,82)=24.88$, $p<.001$, $\eta_p^2=.23$)].

정서표현자에 대한 우월성 평가는 감탄, 부러움, 시샘의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감탄에 비해 부러움과 시샘을 표현한 타인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것은 선망의 정서가 상대방의 우월성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 인식에 기인한다는 해석과 일치한다. 그러나 부러움을 표현한 타인이 시샘을 표현한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지각되는 것은 부러움이 의미하는 정서표현자와 정서대상자 양자 간의 우열의식의 차이가 시샘의 그것만큼 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차운아, 2009)에서 시샘에 비해 부러움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과 연합돼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정서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역시 정서표현자가 전달한 정서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여 상보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해당 정서를 직접 전달한 경우보다는 간접적으로 전달 받을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를 야기한 대상에게 직접 정서를 전달하는 경우 자신의 상대적인 열위와 상대의 상대적인 우위를 당당하게 인정하는 행위로 인해 정서표현자와의 우열관계의 지각 정도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거리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차이는 특히 각 정서를 표현한 타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정서표현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A가 특정 상황에서 나에게 특정 정서를 표현했을 때 나와 얼마나 친한 사람인지(친밀감), 내가 얼마나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인지(친애욕구),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호감)를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심리적 거리 지각 역시 감탄, 부러움, 시샘의 정서 조건과 직접 및 간접의 전달 방식에 따른 3 x 2 피험자내 반복측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서조건과 전달 방식에 따른 친밀감, 친애욕구, 호감 문항에서의 결과는 그림 2에 나와 있다. 먼저, 정서조건에 따라서는 감탄과 부러움을 표현한 타인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시샘의 경우에는 심리적 거리를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감탄과 부러움을 표현한 상대에 대해서는 더 가까운 사람(친밀감),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친애욕구)이라고 여겼으며, 상대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친밀감(감탄: $M=4.55$, $SE=.11$; 부러움: $M=4.47$, $SE=.11$; 시샘: $M=3.79$, $SE=.13$; 정서의 주효과: $F(2,81)=14.22$, $p<.001$, $\eta_p^2=.26$; 감탄 vs. 부러움: $F(1,82)<1$, p=n.s.; 부러움 vs. 시샘: $F(1,82)=24.78$, $p<.001$, $\eta_p^2=.23$), 친애욕구(감탄: $M=4.78$, $SE=.12$; 부러움: $M=4.63$, $SE=.12$; 시샘: $M=3.61$, $SE=.14$; 정서의 주효과: $F(2,81)=22.68$, $p<.001$, $\eta_p^2=.36$; 감탄 vs. 부러움: $F(1,82)=2.19$, p=n.s.; 부러움 vs. 시샘: $F(1,82)=34.08$, $p<.001$, $\eta_p^2=.29$), 호감(감탄: $M=4.69$, $SE=.12$; 부러움: $M=4.56$, $SE=.11$; 시샘: $M=3.80$, $SE=.12$; 정서의 주효과: $F(2,79)=16.80$, $p<.001$, $\eta_p^2=.30$; 감탄 vs. 부러움: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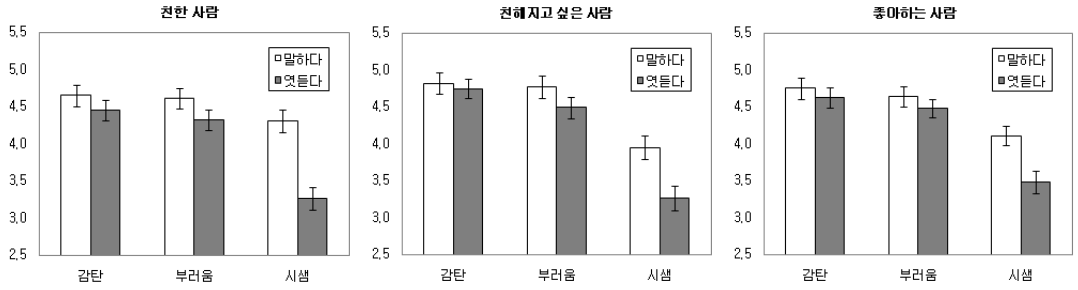

그림 2. 정서 종류와 정서 전달 방식에 따른 정서표현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 지각

$F(1,80)=1.87$, p=n.s.; 부러움 vs. 시샘: $F(1,80)=28.54$, $p<.001$, $\eta_p^2=.26$)].

정서의 전달 방식이 심리적 거리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직접 전달이 간접 전달보다 정서표현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패턴은 친밀감, 친애욕구, 호감 모두에서 발견되었다[친밀감(말하다: $M=4.53$, $SE=.10$; 엿듣다: $M=4.02$, $SE=.11$; $F(1,82)=18.91$, $p<.001$, $\eta_p^2=.19$), 친애욕구(말하다: $M=4.51$, $SE=.10$; 엿듣다: $M=4.17$, $SE=.11$; $F(1,82)=9.03$, $p=.004$, $\eta_p^2=.10$), 호감(말하다: $M=4.50$, $SE=.10$; 엿듣다: $M=4.20$, $SE=.10$; $F(1,80)=7.95$, $p=.006$, $\eta_p^2=.09$)].

그러나 이러한 주효과들은 정서조건과 전달 방식의 상호작용 패턴에 의해 일부 제약을 받았는데, 대체로 감탄과 부러움에 비해 시샘을 표현한 타인에 대해서는 보다 큰 심리적 거리를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시샘의 경우에는 정서 전달 방식에 따라 느끼는 심리적 거리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특히 친밀감과 친애욕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친밀감: $F(2,81)=6.80$, $p=.002$, $\eta_p^2=.14$; 친애욕구: $F(2,81)=3.46$, $p<.05$, $\eta_p^2=.08$). '친밀감' 평가에서는 직접 전달의 경우에는 정서 조건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F<1$, p=n.s.), 간접 전달의 경우 특히 시샘의 표현을 전달 받은 경우에는 다른 두 정서 조건에 비해 친밀감이 낮게 평가되었다($F(2,164)=32.37$, $p<.001$, $\eta_p^2=.28$; 감탄 vs. 부러움: $F(1,82)<1$, p=n.s.; 부러움 vs. 시샘: $F(1,82)=38.90$, $p<.001$, $\eta_p^2=.32$). '친애욕구' 평가의 경우 두 가지 전달 방식 모두에서 정서 조건 간 차이를 보였는데, 직접 전달의 경우에는 감탄이나 부러움 표현 시보다 시샘 표현 시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지각하였고($F(1.50,123.34)=12.17$, $p<.001$, $\eta_p^2=.13$; 감탄 vs. 부러움: $F(1,82)<1$, p=n.s.; 부러움 vs. 시샘: $F(1,82)=13.83$, $p<.001$, $\eta_p^2=.14$), 간접 전달의 경우에는 감탄, 부러움, 그리고 시샘의 순으로 평가가 낮아졌다($F(1.50,122.88)=39.29$, $p<.001$; $\eta_p^2=.32$; 감탄 vs. 부러움: $F(1,82)=4.65$, $p<.05$, $\eta_p^2=.05$; 부러움 vs. 시샘: $F(1,82)=34.42$, $p<.001$, $\eta_p^2=.30$).

'호감' 평가의 경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2,79)=2.99$, $p=.06$, $\eta_p^2=.07$). 이는 직접 전달 조건과 간접 전달 조건 모두에서 감탄과 부러움 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시샘의 호감 평가가 특히 낮아진 사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직접 전달 조건($F(1.68,135.74)=9.16$, $p<.001$, $\eta_p^2=.10$; 감탄 vs. 부러움: $F(1,81)<1$, p=n.s.; 부러움 vs. 시샘: $F(1,81)=9.70$, $p=.003$, $\eta_p^2=.11$), 간접 전달 조건($F(1.69,137.09)=26.45$, $p<.001$, $\eta_p^2=.25$; 감탄 vs. 부러움: $F(1,81)=1.27$, p=n.s.; 부러움 vs. 시샘: $F(1,81)=28.39$, $p<.001$, $\eta_p^2=.26$)].

이 결과는 시샘에 비해 부러움이 보다 가깝고 가까워지고 싶은 상향 비교 대상에 대해 느끼는 정서일 뿐 아니라 나에게 부러움을 표현하는 타인은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느끼게 하여 더 가까운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정서임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이 부러움을 통해 호소하는 심리적 거리는 여러 모로 뛰어난 사람에 대해 경험하는 긍

www.kci.go.kr

정적 정서인 감탄과 비교해도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시샘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동시에 부러움의 사회친화적 기능이 감탄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그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가적으로, 표현 정서에 따른 심리적 거리의 지각 차이는 특히 해당 정서를 간접 전달하는('엿듣는') 상황에서 가정된 기능에 가장 근접한 반응양식을 두드러지게 보이며, 정서를 직접 전달하는('말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희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서 경험자가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게 해당 정서를 말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 정서 경험자가 대상을 우월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상대에게 고백함으로써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사회적 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호적 반응으로서 상대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상대적으로 좁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상대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인간성

정서 표현 타인의 인간성에 대한 지각은 동성친구 A가 특정 상황에서 나에게 특정 정서를 표현했을 때 A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신뢰)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선함)를 묻는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정서 조건과 전달 방식에 따른 3 x 2 피험자내 반복측정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정서조건과 전달 방식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신뢰 및 선함 평가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 조건의 주효과는 두 측정치 모두에서 유의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감탄, 부러움, 시샘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감탄: M=4.70 SE=.12; 부러움: M=4.37, SE=.12; 시샘: M=3.85, SE=.12; 정서의 주효과: $F(2,80)=17.74$, $p<.001$, $\eta_p^2=.31$; 감탄 vs. 부러움: $F(1,81)=11.98$, $p=.001$, $\eta_p^2=.13$; 부러움 vs. 시샘: $F(1,81)=13.90$, $p<.001$, $\eta_p^2=.15$). 상대방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정도 역시 감탄, 부러움, 시샘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감탄: M=4.77, SE=.11; 부러움: M=4.53, SE=.11; 시샘: M=3.91, SE=.11; 정서의 주효과: $F(2,80)=18.65$, $p<.001$, $\eta_p^2=.32$; 감탄 vs. 부러움: $F(1,81)=7.37$, $p<.01$, $\eta_p^2=.08$; 부러움 vs. 시샘: $F(1,81)=22.00$, $p<.001$, $\eta_p^2=.21$).

전달 방식의 주효과는 신뢰의 평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말하다: M=4.37, SE=.12; 엿듣다: M=4.25, SE=10; $F(1,81)=1.27$, p=n.s.) 선함의 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직접 전달의 경우 간접 전달의 경우보다 정서표현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말하다: M=4.50, SE=.09; 엿듣다: M=4.31, SE=.09; $F(1,81)=4.17$, $p<.05$, $\eta_p^2=.05$).

이러한 주효과 외에 정서조건과 전달 방식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신뢰: $F(2,80)=18.00$, $p<.001$, $\eta_p^2=.31$; 선함: $F(2,80)=11.57$, $p<.001$, $\eta_p^2=.22$). '신뢰' 평가의 경우 직접 전달 시에는 정서 조건 간 차이가 없었으나 간접 전달 시에는 정서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감탄, 부러움, 그리고 시샘 순으로 신뢰도 평가가 감소하였다(직접 전달: ($F(1.64,134.16)=1.37$, p=n.s.; 간접 전달: $F(1.70,137.51)=38.43$, $p<.001$, $\eta_p^2=.32$; 감탄 vs. 부러움: $F(1,81)=12.05$, $p=.001$, $\eta_p^2=.13$; 부러움 vs. 시샘: $F(1,81)=28.00$, $p<.001$, $\eta_p^2=.26$). 상대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의 평가의 경우 정서를 직접 전달 받은 경우와 간접 전달을 받은 경우 모두에서 정서 조건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직접 전달: $F(1.70,139.31)=4.27$, $p=.02$, $\eta_p^2=.05$; 간접 전달: $F(1.58,127.89)=35.35$, $p<.001$, $\eta_p^2=.30$). 직접 전달의 경우에는 부러움을 표현한 타인에 대해서는 감탄을 표현한 타인에 비해 선함의 평가에 차이가 없었으나, 시샘을 표현한 타인에 대해서는 감탄을 표현한 타인에 비해 상대방의 선함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감탄 vs. 부러움: $F(1,82)=2.11$, p=n.s.; 부러움 vs. 시샘: $F(1,82)=2.97$, p=n.s.; 감탄 vs. 시샘: $F(1,82)=6.26$, $p=.01$, $\eta_p^2=.07$). 간접 전달의 경우에는 감탄, 부러움, 그리고 시샘 순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낮아졌다(감탄 vs. 부러움: $F(1,81)=8.17$, $p=.005$, $\eta_p^2=.09$; 부러움 vs. 시샘: $F(1,81)=27.91$, $p<.001$, $\eta_p^2=.26$).

결과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평가는 직접 전달에 비해 간접 전달 시 감탄, 부러움, 시샘의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직접 표현 시에는 정서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간성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러한 패턴에는 의도의 진정성 해석이 개입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 전달 조건('말하다')을 간접 전달 조건('엿듣다')과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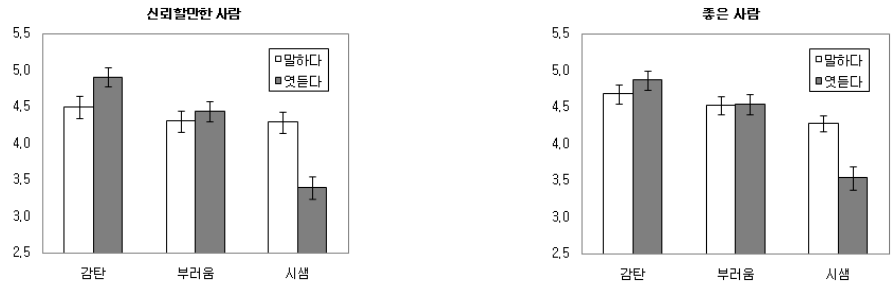

그림 3. 정서 종류와 정서 전달 방식에 따른 정서표현자에 대한 인간성 지각

비교해 봤을 때 부러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신뢰: $F(1,84)<1$, p=n.s.; 선함: $F(1,84)<1$, p=n.s.) 감탄은 간접 전달에 비해 오히려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신뢰: $F(1,82)=6.90$, $p=.01$, $\eta_p^2=.08$; 선함: $F(1,82)=2.13$, p=n.s.), 시샘은 간접 전달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인상을 ($F(1,82)=23.24$, $p<.001$, $\eta_p^2=.22$; 선함: $F(1,82)=23.49$, $p<.001$, $\eta_p^2=.22$)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정서로 여겨지는 시샘의 경우 대상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는 점에서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신뢰성이나 선함 정도의 평가에서 상대적인 이점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정의 정서인 감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도적인 칭찬이나 아부 등 의도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의 양가적인 특성을 가진 부러움은 의도의 진정성 확보 측면에서 시샘만큼 큰 이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직접 전달의 방식이 감탄만큼 손실을 초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해당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진정성의 이점을 얻지 못한 채 정서 표현의 본질적인 의도 차이에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정서에 부합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러움이 대표적인 선망 정서인 시샘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졌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무해한 선망으로서의 부러움이 한국 문화에서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갖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주요 결과 및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빈도에 대한 기질적 선망, 사회비교 지향, 조절초점 등 성격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이 모두 기질적 선망에 의해 예측됨을 보여준다. 이는 부러움과 시샘이 공통적으로 선망의 정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비교 정보의 추구 성향 측면에서는 이들 정서가 명확히 구분됨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비교 지향의 경우 의견 관련 사회비교 지향 경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조절 초점 중 예방 초점이 낮을수록 부러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변인들은 시샘의 경험 빈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샘과는 달리 부러움의 정서 경험이 능동적으로 사회비교 정보를 추구하고 하향 비교를 꺼리는 성향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가상적 양자 관계 상황에 대한 상호 정서 반응의 분석은 시샘의 경험이 '분리'와 '회피'를 동기화하는 데 비해 부러움의 경험은 '연합'과 '접근'을 동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보다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예상대로 시샘의 표현은 정서 표현 대상에게 둘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지 않음을 신호함으로써 정서 표현 대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친하지 않거나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이끌어낸 데 비해 부러움의 표현은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신호함으로써

www.kci.go.kr

상대적으로 친하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 호감 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악의적 선망인 시샘은 불공평한 우위를 누린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분리'와 '회피'의 동기에 기반을 둔 정서인데 비해 무해한 선망인 부러움은 불공평한 우위를 가지지만 나와 가까운 혹은 가까워질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유대를 강화하려는 '연합'과 '접근'의 동기에 기반을 둔 정서일 것이라는 가설과 공명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러움이라는 정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이 연구는 차운아(2009) 연구에서 처음 확인되었던 부러움과 시샘 간의 차이점을 정서의 사회적 기능이란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부러움과 시샘의 경험은 사회비교 지향 및 조절초점 등 동기 관련 개인차와의 관련성에서도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정서의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의미(우월성, 심리적 거리, 인간성)를 통해 상대로부터 유도하게 되는 상호적 반응의 측면에서도 명백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로써 지금까지 생각된 것처럼 부러움과 시샘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선망'의 여러 이름이 아니며 서로 다른 정서임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부러움이 선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긍정 정서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것 역시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적의가 결여된 선망이라는 의미에서 '무해한 선망'으로 범주화된 정서들은 긍정 정서에 가까운 감탄(admiration)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에(Foster, 1972; Silver & Sabini, 1978) 진정한 의미의 선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기도 했다(Smith & Kim, 2007). 그러나 감탄의 정서를 포함하여 비교한 이번 연구에서 부러움은 감탄과도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정서를 표현한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 지각에서는 부러움 조건에서의 반응이 감탄 조건에서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러움의 표현이 전달하는 사회적 근접성과 관련된 신호는 긍정 정서인 감탄의 그것과 유사할 만큼 강력하며 한편으로 시샘과는 극적으로 대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서 표현 대상과의 우월 관계 지각이나 대상의 인간성과 관련된 평가에서는 감탄 조건과 시샘 조건에 대한 반응의 중간에 위치하며 특히 감탄 조건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단순히 감탄과 동일한 정서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기질적 선망이 부러움과 시샘을 모두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는 부러움이 단순히 다른 긍정 정서가 아닌 선망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러움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상황의 해석 및 동기, 고유의 정서 경험, 그리고 독특한 사회적 영향과 기능과 연합된 무해한 선망으로 악의적 선망인 시샘이나 유사 정서로 생각되었던 감탄과도 구분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또한 단순히 개인의 내적 경험으로서의 정서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정서라는 차원에서 양자 관계에서 정서가 표현되고 상대에 의해 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관계가 조율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정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Keltner와 Haidt(1999)는 양자 관계의 분석 수준에서 가능한 정서의 사회적 기능으로는 (1) 다른 사람의 정서, 신념, 의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며 (2) 정서를 전달한 사람에게 상보적인 혹은 상호적인 반응을 야기하며 (3)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제지책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문화에서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은 흥미로운 관찰 지점을 제공한다.

Keltner와 Haidt(1999)의 양자관계의 분석에 의하면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 대해 부러움을 표현하는 행위는 그 대상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인식과 의도를 명백하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차운아(2009)의 연구에서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면 시샘을 느끼는 대상에 비해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은 능력, 사교성, 도덕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생각되는 사람이며 사회적/심리적 거리의 측면에서 가까우며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으로 지각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러움의 표현은 정서 표현자가 상향 사회비교 대상을 상대적으로 우월하며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도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렇다면 실제로 정서표현자의 인식과 의도가 정서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의 정서 표현에 대해 정서 대상자가 정서표현자에 대해 상보적으로 혹은 상호적으로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이다. 정서 경험자가 정서 표현을 통해 전달하는 양자의 우열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단서는 각각 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상보적 반응(예: 한 사람의 상대적인 우월성은 다른 사람의 상대적인 열등성 강조) 혹은 상호적 반응(예: 한 사람의 친밀감이 다른 사람의 친밀감 유도)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정서표현자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패턴을 반영해 주고 있다. 부러움 표현자에 대한 우월성의 평가는 대체로 감탄을 표현한 사람에 비해서는 낮지만 시샘 표현자에 비해서는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러움 표현자와의 심리적 거리 및 인간성 평가는 감탄 표현자와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거나 낮지만 시샘 표현자와 비교해서는 높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양자관계에서의 정서 표현 상황 분석을 통해 부러움은 정서를 전달한 사람에게 상보적 혹은 상호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부러움이 상대방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과 가까이하고 싶다는 의도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경과 신뢰 및 호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를 통해 정서표현자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은 부러움이 단순히 특정 상황의 해석에 대한 반응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의도적이며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일본의 아마에(Amae)에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Doi(1992)는 아마에를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용인 속에서 응석을 부리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Yamaguchi와 동료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아마에의 행동적 정의를 (1) 어떤 행동이나 요구가 부적절하지만 (2) 다른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이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Niiya, Ellsworth, & Yamaguchi, 2006; Niiya, Yamaguchi, Murakami & Harihara, 2000; Yamaguchi, 1999).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람이 부적절한 요구를 함으로써 내가 조정을 당하거나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아마에 요구자가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강조했을 때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상대에게 필요한 사람이며, 가치가 있으며, 존경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Maruta, 1992). 특히 애정과 근접성에 대한 욕구를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아마에 요구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그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요구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낌으로써 혹은 상대적인 권력감을 갖게 함으로써 기분을 좋게 하여 그 요구가 부적절하고 들어주기 힘든 것이었다 할지라도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Niiya, Ellsworth, & Yamaguchi, 2006).

일본 아마에의 이러한 측면은 한국에서 부러움이 수행하는 기능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 두 정서가 상대적인 권력관계 혹은 우열관계와 사회적 근접성에 대한 단서를 적극적으로 신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아마에는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의존관계를 인식시키고 상대적인 권력감을 안겨주며, 부러움은 사회비교의 우열 단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인식시켜 공통적으로 상대방을 북돋우고 고양시키는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에 덧붙여 아마에의 경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여줄 것을 기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만큼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전달한다. 한편 부러움의 경우 자신의 열등지위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띄우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럽다는 정서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만큼 자신이 상대방과 가깝거나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의도를 전달한다.

의존 관계 혹은 우열 관계 단서를 신호하는 것 자체로도 상대방에게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며 신뢰하거나 존경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상대방이 나에 대해 호의적이며 관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가깝게 여

www.kci.go.kr

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사회적 의미까지 확인시킴으로써 이 두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은 정서대상자로부터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연구의 경우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이 해당 정서를 정서대상자에게 직접 다가가 '말하는' 상황과 제 삼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간접적으로 '엿듣는'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정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우월성 및 심리적 거리 평가가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방향으로 높아지며 정서 조건 간의 차이가 둔화되는 현상은 상대방에게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관계의 친밀성 및 친애욕구의 사회적 단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서를 상대방에게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과 일본처럼 개인의 의도나 가치 혹은 선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도나 가치 혹은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집합주의적이며 상호의존적인 문화권에서 이처럼 개인이 다른 개인의 감정을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바(필요한 도움 혹은 다른 사람의 애정 혹은 호감)를 얻어내려고 하는 다소 이기적이며 조정적인(manipulative) 정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원하는 바를 당당히 요구하기 쉽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체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들 문화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 정서가 개인의 요구와 개인이 속한 문화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이를 절충하여 해소하려는 정서로 진화되었을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문화의 아마에처럼 한국문화의 부러움은 빈번한 상향 사회비교를 요구하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긴장과 잠재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를 조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달했을 수 있다. 문화가 특정 정서를 진화시킨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거나 기존 정서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했을 때(Keltner & Haidt, 2001) 일본의 아마에나 한국의 부러움은 정서에 대한 이와 같은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부러움은 그간 정서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무해한 선망을 정서 연구의 궤도에 자리매김하는 독특한 한국의 사례로서뿐 아니라 정서의 사회적 기능을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하고 이를 통해 문화와 정서 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해 준다. 앞서 언급한 Keltner와 Haidt(1999)의 정서의 사회적 기능적 접근의 네 가지 분석 수준에 따르면 개인 및 양자관계 수준에서의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이외에도 집단과 문화 수준에서 분석 가능한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집단 수준의 분석에서는 (1) 개인이 집단의 경계를 정의하고 집단 성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2) 집단과 관련된 역할 혹은 지위를 정의하고 협상하며 (3) 집단 성원이 집단과 관련된 문제를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문화 수준의 분석에서는 (1) 개인이 문화적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나 (2) 문화의 규범 및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그리고 (3) 문화적 이념이나 권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영속시키는 기능이 제안돼 있다. Keltner와 Haidt(2001)의 경우 (악의적) 선망은 집단 관리(group governance)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서로서 부정행위나 변절을 피하고 협력을 권장하여 상호성(reciprocity)을 회복하기 위한 정서임을 제안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러움이나 선망과 관련된 정서들이 집단 및 문화 수준에서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정서의 사회적 기능적 접근이 제안하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러움 및 다른 선망 관련 정서 연구와 같이 정서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도 유용하지만 각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통해 특정 정서의 존재 이유와 이 정서가 실제로 그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문화 특유의 정서에 대해 이러한 분석틀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특성에 비추어 해당 정서가 독특하게 진화된 이유를 밝힘으로써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으로 특정 정서를 표현하는 '동성의 친구 A'를 설정한 후 A에 대한 인상 형성을 살펴보았다. 이 때 그 대상이 동성이며 친구라는 정보는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참여

www.kci.go.kr

자마다 A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인물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소 성격이 모호한 대상을 설정한 것은 물론 주어진 특정 정서 상황에 적합하다고 떠올린 사람이 우월성, 심리적 거리, 인간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혹은 상황에 따라 A라는 모호한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설정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대상과 판단자와의 역사나 관계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인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나에게 적개심이나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 '대단하다' 혹은 '부럽다'고 표현하는 상황은 냉소나 비아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서 표현 의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어 전혀 다른 사회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의 표현 방식에 따라 전달되는 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관계 및 사회적 맥락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만을 상대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현대의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및 정서 표현이 자유로운 문화를 구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정서 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명시적으로 표현된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이것은 확장하여 Hall(1976)의 고맥락 문화(high context culture)와 저맥락 문화(low context culture)의 의사소통 방식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적 행동의 많은 측면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문화 성원들이 일일이 표현되지 않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와 속뜻을 파악해야 하는 고맥락 문화와는 달리 저맥락 문화에서의 의사소통은 모든 것이 명시적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표면적인 의미에 치중한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동양문화권과 마찬가지로 고맥락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Copeland & Griggs, 1986) 한국 문화 안에서도 세대나 집단에 따라 이러한 문화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그 문화에서 통용되는 의사소통 방식과 정서 표현 수준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문화 성원들 간에 선호하는 정서 표현 수준과 이들 간에 주고받는 사회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러움이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갖는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고맥락 문화 혹은 저맥락 문화의 특성 및 정서 표현 수준에 대한 믿음을 고려했을 때 사회 성원들 간에 정서 표현을 통해 사회적 의미가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109-129.

장은영, 한덕웅 (1999). 비교 대상의 선택에서 환류유형, 비교속성 및 통제력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01-217.

차운아 (2009). 부러움: 한국의 "무해한 선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71-189.

표준국어대사전 (2010). 2010년 3월 5일 출력. 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 국립국어원.

한덕웅 (1999).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 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311-329.

Algoe, S. B., & Haidt, J. (2009). Witnessing excellence in action: the 'other-praising' emotions of elevation, gratitude, and admira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105-127.

Cohen-Charash, Y., & Mueller, J. S. (2007). Does perceived unfairness exacerbate or mitigate interpersonal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s related to env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 666-680.

Copeland, L., & Griggs, L. (1986). *Going international: How to make friends and deal effectively in the global market place*. New York: Random House.

Darwin, C. (1872/1998).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Definitive edition*. P. Ekman,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ww.kci.go.kr

Diener, E., Fujita, E., & Seidlitz, L. (1991). *Manual for the 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ITA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Dogan, K., & Veccio, R. P. (2001). Managing envy and jealousy in the workplace. *Compensation Benefits Review, 33*, 57-64.

Doi, T. (1992). On the concept of *Ama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 7-11.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Fiske, A. P. (1991). *Structures of social life*. New York: Free Press.

Foster, G. M. (1972). The anatomy of envy: A study in symbolic behavior. *Current Anthropology, 13*, 165-202.

Frijda, N. H., & Mesquita, B. (1994). The social roles and functions of emotions. In S. Kitayama & H. Marcus (Ed.),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d* (pp. 51-8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Garden City: Anchor Press.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 1-46). New York: Academic Press.

Keltner, D., & Haidt, J. (1999). Social functions of emotions at four levels of analysis. *Cognition and Emotion, 13*, 515-521.

Keltner, D., & Haidt, J. (2001). Social functions of emotions. In T. Mayne & G. A. Bonanno (Eds.), *Emotion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pp. 192-213). NewYork: Guilford Press.

Keltner, D., & Kring, A. (1998). Emotion, social function, and psychopatholog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20-342.

Lockwood, P., Jordan, C. H., & Kunda, Z. (2002). Motivation by positive or negative role models: Regulatory focus determines who will best inspire 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854-864.

Maruta, T. (1992). Does an American puppy *Amaeru*? A comment on Dr. Doi's pap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 12-17.

Niiya, Y., Ellsworth, P. C., & Yamaguchi, S. (2006). Ama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 exploration of a "culturally unique" emotion. *Emotion, 6*, 279-295.

Niiya, Y., Yamaguchi, S. Murakami, F., & Harihara, M. (2000). *Converging evidence on the meaning of amae among Japanes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 Pultusk, Poland.

Ortony, A., Clore, G. L., & Collins, A. (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rott, W. G. (1991).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envy and jealousy. In P. Salovey (Ed.),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 (pp. 3-30). New York: Guilford.

Parrott, W. G., & Smith, R. H. (1993). Distinguishing the experiences of envy and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06-920.

Schaubroeck, J., & Lam, S. S. K. (2004). Comparing lots before and after: Promotion rejectees' invidious reactions to promote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4*, 33-47.

Silver, M., & Sabini, J. (1978). The perception of

www.kci.go.kr

envy. *Social Psychology, 41*, 105-117.

Smith, R. H., & Kim, S. H. (2007). Comprehending envy. *Psychological Bulletin, 133*, 46-64.

Smith, R. H., Parrott, W. G., Diener, E. F., Hoyle, R. H., & Kim, S. H. (1999). Dispositional env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007-1020.

Suls, J., Martin, R., & Wheeler, L. (2002). Social comparison: Why, with whom and with what effec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159-163.

Van de Ven, N., Zeelenberg, M., & Pieters, R. (2009). Leveling up and down: The experience of malicious and benign envy. *Emotion, 9, 419-429*

Veccio, R. P. (2000). Negative emotion in the workplace: Employee jealousy and envy.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7*, 161-179.

Veccio, R. P. (2005). Explorations in employee envy: Feeling envious and feeling envied. *Cognition & Emotion, 19*, 69-81.

Yamaguchi, S. (1999). Nichijougo to shiteno *Amae* kara kangaeru [Thinking *Amae* from everyday usage of the word]. In O. Kitayama (Ed.), *Amae ni tsuite kangaeru* [Thinking about *Amae*]. Tokyo: Seiwa Shoten.

www.kci.go.kr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0, Vol. 24, No. 2, 51~72

Buroum: An Emotion Strategically Communicating Association and Approach Motives

Oona Cha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social functions of two envy-related emotions in Korea: *Buroum* (benign envy) and *sisem* (malicious envy). Although these two emotions might share some common features as members of envy family, it was hypothesized that they are associated with solving different social problems and thus serve different social func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buroum* was uniquely predicted by high level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low level of prevention motives. In addition, experience of being envied in terms of *buroum*, compared to that in terms of *sisem*, evoked greater reciprocal sense of closeness and desire to be close with the person who envi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perience of *sisem* is associated with and is based on 'separation' or 'avoidance' motives and serves a social function of balancing unjustified unfairness whereas the experience of *buroum* is associated with and is based on 'association' or 'approach' motives and serves a social function of managing interpersonal harmony and strengthening social ties in collectivist and interdependent cultures.

Keywords : emotion, envy, Buroum, Sisem, admiration, social comparison, approach motive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3월 23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5월 9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5월 14일

www.kci.go.kr